



귀농·귀촌, 준비 기간 증가

■ 농진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조사 결과

새로운 삶 젊은층↑...학위·자격증 보유비율도 자금부족 여전...숙박·관광 등 견업 비율도 늘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정착한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 기간도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삶'을 찾아 농촌으로 떠난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에 앞서 스스로 배우고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신의 귀농·귀촌 생활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비율도 늘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자의 37.9%가 50세 이하로 기존 농업인들보다 비교적 젊었다. 대졸이 차지하는 비율이 44.6%로 상당히 높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도 9.3%였다.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도 12.5%를 차지했다. 전체 대상자 중 59.7%가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의 동기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40세 이하에선 새로운 대안적 삶을 추구(대안가치형)한 경우가 많았고 40세 이상에선 은퇴 후 전

원생활을 위해 떠나는 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을 대비한 준비 기간은 2013년 이후 155.8시간으로 2008년 이전(98.8시간)이나 2009~2010년(109.7시간), 2011~2012년(109.0시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평균(118.9시간)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생활 만족도도 높아졌다. 귀농·귀촌 후 스스로 '성공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내린 비율은 2014년 46.2%에서 2018년 58.1%로 올랐다. 연령별 만족도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3.6점/5점 만점), 원만한 가족관계(3.4점), 주민 융화(3.3점)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가족 단위로 이주한 경우가 절반 이상(51.4%)이었고, 초기에 가장 홀로 이주했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합류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을 개발 사업이나 청년회·부녀회·지도자회 등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비율도 늘었다.

정착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여유자금 부족(46.9%)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밖에 귀농·귀촌인들은 영농 기술 습

득(27.1%), 생활 불편(25.1%), 농지 구입(25.0%) 등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사를 시작할 때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41.4%였다. 임차한 경우는 26.2%였는데, 이 중 54.9%는 1년 안에 농지를 샀다. 토지를 불러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하는 비율은 16.4%였다.

귀농·귀촌 후 농업과 함께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견업 비중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영농 전업 비율은 2014년 49.0%에서 2018년 44.8%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견업 비율은 27.9%에서 35.0%로 올랐다. 특히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 관광·체험, 숙박·식당 등으로 경제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반면 귀촌인의 경우 농업 종사 비율이 2014년 55.4%에서 2018년 65.1%로 늘었다. 특히 이 기간 40세 이하에서 33.3%에서 53.3%로 증가 폭이 컸다.

조사 기간 중 도시로 이주한 응답자는 89명(8.6%)이었다. 이 같은 '역귀농'의 요인으로는 영농 실패(18명), 일자리(5명), 건강(5명), 자녀 교육(5명)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8-10월을 기준으로 선정된 귀농·귀촌인 1039명의 동의를 받아 준비·이주·정착 과정, 경제 활동, 지역 사회 활동 등 변화 추이를 5년간 지속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에 거주하면서 텃밭 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을 정의로 삼았다. **뉴시스**

광주상의 '日 수출규제 선제적 대응' 내일 지역기업 설명회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 통해 '수출통제 제도 비교'

광주상공회의소가 일본 정부의 '2차 수출규제'에 대비해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을 나선다. 광주상의는 오는 2일 오후 3시 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료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

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부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해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 우리 기업들의 준비·유의사항,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 등을 중심으로 전략물자관리원 전문

가의 상세 설명이 먼저 이뤄진다. 실제 애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가동 중인 '소재부품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을 위한 대체 공급선 확보, 무역금융,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방안 등도 함께 안내한다.

광주상의는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 품목 리스트를 상의 홈페이지(gjcc.or.kr)공지사항에 올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영향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서은홍 기자



"식사대용 영양음료 드세요" 지난 7월 31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그린비아 멀티 밸런스'와 '그린비아 프로틴 밸런스'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일부터 국내 최초 영양식을 개발한 '정식음'과 함께 개발한 대용성 영양음료 '그린비아 멀티 밸런스'와 '그린비아 프로틴 밸런스'를 판매한다.

뚝 떨어진 금리...주담대 '2% 시대'

예·적금 1%대

은행권 예·수신금리가 뚝 떨어지며 다시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해 2%대 중반을 향해 가고 예금금리에 이어 저금리 1%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19%p 내려간 2.74%(신규취급액 기준)를 나타냈다. 지난 2016년 8월(2.70%)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하락폭은 지난 2015년 3월(0.27%p)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인상 직전인 지난해 10월 3.31%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지난 4월(2.98%)부터는 2%대에 진입했다.

지난달에도 주요 지표금리는 은행채(AAA) 1년물, 3년물, 5년물 금리가 각각 0.13%p, 0.16%p, 0.18%p씩 떨어져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달 단행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에 반영된 영향으로 어

는 때보다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집담대출 금리도 2%대로 내려갔다. 전월대비 0.43%p 하락한 2.85%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2016년 8월(2.79%)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4.23%로 0.17%p 급락했다. 보증대출(3.20%), 소액대출(4.55) 금리도 각각 0.23%p, 0.10%p 하락했다.

예·적금 금리는 1%대로 접어들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90%로 내려가 지난 2017년 10월(1.79%) 이후 1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기적금 금리도 전월 2.01%에서 1.99%로 0.02%p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내려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0%로 전월보다 0.06%p 축소됐다.

전문건설 시공능력 평가 광주 삼지토건·전남 도양기업 1위

삼지토건과 도양기업이 2019년도 전문건설 부문 시공능력 평가에서 광주·전남 1위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는 지난 7월 31일 광주 지역 1183개 전문건설업체와 전남 3303

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올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시공능력 평가에 선정 결과 광주에서는 삼지토건이 817억45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도양기업이 1726억

1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시공능력 평가금액은 건설업체의 상대적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다.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이 반영돼 있어 건설업체의 평가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